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대가야태자 월광이 망국 이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월광태자, 신라가 도설지 왕으로 옹립

1.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

가야연맹의 역사는 <삼국유사> '기이' 편의 '오가야'와 '가락국기'와 '금관성파사적담' 조목의 기록 뿐이다. 이중 '오가야'와 '가락국기'에 의하면 가야 연맹의 지리적 위치를 알 수 있다. 오가야는 아라가야(경남 함안), 고령가야(경남 진주), 대가야(경북 고령), 성산가야(경북 성주), 소가야(경남 고성)에 자리해 있었다. 이들 오가야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금관가야(경남 김해)는 오가야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관가야가 신라·고구려 연합군에 의해 부산 북천동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왜나라로 떠난 이후 대가야는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했다. 대가야는 금관가야로부터 이식받은 철기를 중심으로 여타 가야국들을 이끌면서 가야연맹을 지속시켰다. 그 중심에는 가실(嘉實)왕과 이뇌(異腦)왕 및 그의 아들 월광(月光, 뒷날의 道設智·指王)이 있었다. 월광은 대가야의 마지막 왕 이뇌가 신라에 구혼하여 신라 왕녀 양화공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대가야는 결혼동맹을 통해 신라와의 관계를 개선한 뒤 백제에 대응하였다. 하지만 백제와 신라는 삼한일통을 위해 가야연맹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점점 옥죄어 들어오는 두 나라 사이에서 대가야 지배층은 오랜 격론 끝에 새롭게 부상하는 신라와 등지고 기존의 백제와 연합하는 국제정책을 수립했다. 이즈음 신라와 백제 역시 나제동맹을 맺고 고구려가 차지한 한강 유역을 공격하여 한강 상류는 백제가

신라 백척·백제 연합 정책 펼쳐

관상성 전투로 백제 원조 끊겨 위기

차지하고 중하류는 신라가 차지하였다. 다시 신라는 120여년을 지속시켜온 나제동맹을 깨고 고구려와 연합하여 백제의 관상성(충북 옥천)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가랑(가야)은 백제군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백제는 관상성 전투(554)에서 성왕과 좌평 4인 및 군사 29,600명이 전사했다. 살아 돌아간 군마가 한 필도 없었다고 전한다. 백제는 대가야에 대한 원조 능력을 상실하였고 대가야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대가야는 신라의 양화공주를 수행하기 위해 보낸 700여명의 하인들을 가야웃으로 변복시켰다. 이에 신라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결혼동맹을 파기했다. 그러자 대가야 내부는 백제와 우호관계를 유지하지는 쪽과 새롭게 부상하는 신라와 선린관계를 유지하지는 쪽으로 갈라졌다. 격론 끝에 대가야는 친백제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태자 월광은 어머니의 나라인 신라로 망명했다. 신라의 진흥왕은 신라를 배반한 대가야를 토벌하기 위해 이사부(異斯夫)를 보냈으며 사다함을 부장으로 삼았다. 사다함은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앞질러 전단문에 들어가 백기를 꽂았다. 온 성중의 사람들은 겁을 내어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사부가 군사를 끌고 들어닥치자 일시에 모두 항복해 버렸

다. 대가야 지배층의 결정을 따를 수 없었던 가야금 연주자 우륵(于勒)도 신라에 투항했다.

금관가야의 '출가야기'(出伽倻記) 이후 그들의 철기문화를 흡수하여 이웃 가야연맹국으로 전파한 대가야 백성들은 망연자실하였다. 그들은 철기문화를 발전시켜 대륙과 반도 및 열도에 수출해 오면서 선진문명의 담지자로서 자존심이 강했다.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520여년을 지속해온 가야연맹의 백성들은 신라에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일본서기>(欽明神皇 23년조)는 이때의 상황을 <양사> '왕승변전'을 인용하여 "어찌 솔도지빈(率土之賓), 왕신으로서 사람이 곡식을 먹고 사람의 물을 마시면서 누가 이를 참아 들으며 마음에 대도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적었다. 신라는 대가야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이뇌왕의 아들인 월광을 도설지왕으로 옹립했다. 도설지왕이 된 월광은 대가야인들을 안도시켰다. 하지만 신라는 대가야를 완전히 장악한 뒤 도설지를 내쳤다. 결국 도설지 즉 월광은 가야산 해인사 서쪽 5리에 월광사를 짓고 출가를 하여 말년을 그곳에서 보냈다. 대가야 마지막 왕의 후손이었던 순응(順應)과 이정(理貞) 역시 가야산에 해인사를 세우고 가야의 정신을 이어갔다. 이후 대가야인들의 마음은 가야 지역 곳곳에 남아 전설과 설화로 퍼져나갔다.

2. 정견모주와 해인사

해인사 대웅전 계단 옆에는 대가야 시조신인 정견모주(正見母主)를 모신 국사단(局司壇)이 있다. 순응과 이정은 이 사당 주위이다. 해인사를 창건하였다. 해인사는 일곱 번이나 화재가 났지만 이 전각은 불을 피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에서는 매일 음력 보름에 큰 재를 올린다. 또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대제를 올린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령현 '건지연역'조에 실린 최치원(崔致遠)의 '석순응전'(釋順應傳)에는 "가야산신인 정견모주의 10세손이자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王)의 9세손이며 아버지는 대가야의 제9대 왕인 이뇌왕(異腦王)이고, 어머니는 신라의 이찬 비조부(比助夫)의 딸이다. 두 나라가 혼인을 통해 동맹관계를 맺었으나, 후에 동맹을 깨뜨린 신라의 진흥왕 23(562)년에 대가야가 멸망하였다. 그 후 월광태자는 승려가 되어 가야산 아래 월광사(月光寺)를 짓고 만년을 보냈다"고 한다.

또 여기에는 "해인사에는 정견전왕의 사당이 해인사에 있다. 해인사가 들어설기 전에 가야산신 정견모주 천신이 감응한 곳"이라고 했다. 이곳에는 1,200여년 전 해인사 창건을 기념해 심은 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다. 또 경남 함천군 아로면 북쪽 5리에 세워진 월광사는 대가야의 마지막 태자인 월광이 불문에 귀의하여 결연(출가)한 곳이다. 월광사에는 지금도 탑 두 기가 서서 신라에 멸망한 대가야의 오백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여러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구 및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복원한 대가야의 왕계는 이렇다. 즉 시조신인 정견모주와 이뇌왕이 사에서 제1세 이진아시왕이 태어났고 그 아래에서 제3-4세의 금림왕(47호분), 제6-7세의 가실왕(嘉實/荷實王), 제8세의 이뇌왕과 제9세의 도설지왕(월광



대가야 고분. 웅장하고 화려한 가야 고분은 당시 가야의 국력이 크게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중의 하나였다.

태자) 정도가 확인된다. 아직 제2세와 제5세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진아시왕부터 도설지왕까지 9대에 걸쳐 이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금관가야가 '출가야기'한 이후 적손이 아니라 지방 추장(방계?)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금관가야의 왕계 역시 9대에서 마감되었다. 반면 대가야의 월광태자는 <삼국사기> '지리지-고령군'조에 나오는 대가야의 마지막 왕인 제16대 왕 도설지왕(道設智王)과

합천 월광사에 가야 왕조 흔적

월광태자 왕에서 밀려나 출가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세계(世系)가 다른 것은 10을 16의 오기로 보는 견해와 10대는 직계로, 16대는 왕계로 보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신라가 세운 단양적성비(545-550)에는 공격을 세운 10여명의 장군 이름을 가운데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었던 구해(仇亥)왕의 셋째 아들이자 신라장군이었던 무력(武力, 김유신의 조부)과 함께 신라장군(9위 급간지-丹陽新羅적성비; 8위 사적간-昌寧眞興王적경비)이었던 도설지(월광)가 적혀 있다. 그리고 진흥왕순수비(561)에는 왕의 수행한 장군이었던 '도설지'(道設智)가 적혀 있다.

표기는 다르지만 도설지는 월광태자가 분명하다. 나라의 비운을 온몸에 안았던 대가야의 마지막 태자 월광은 신라에 의해 도설지왕으로 왕위에 옹립된 뒤 곧 밀려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는 월광사에서 출가하여 말년을 쓸쓸히 보냈다. 월광태자의 이미지는 신라의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 바치자 개골산으로 들어간 마의(麻衣)태자와 겹쳐진다. 대가야의 마지막 태자였던 월광(月光)은 우리말 '달님'을 나타낸다.

3. 대가야의 햇빛과 달빛

경북 고령군 지산동 주산 7부 능선에 펼쳐져 있는 대가야 고분군은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적으로 이끌

었던 대가야의 위용이 잘 나타나 있다. 대가야는 남원과 하동 및 김해와 함천을 좌우로 날개처럼 끼고 머리 부분에 자리한 가야산 주변의 고령을 거점으로 했다. 발굴조사에 따르면 봉분이 사라진 무덤까지 셈하면 약 1,000기 고분군이 잔존하며 이중 일련번호를 매긴 큰 고분은 72기이다. 이중 약 30여기는 봉분을 지닌 고분군이다. 현존하는 무덤의 봉분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나 공간이 모자라자 다시 아래로 내려와 서부지역으로 확장되었다.

대가야는 일찍부터 백제를 통해 중국 남조(남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금관가야를 비롯한 가야 일부지역에는 낙동강 하류를 통해 들어온 남방불교의 흔적이 일부 보인다. 하지만 가야 연맹의 불교는 중국 남조의 대승불교가 주류였다. 능선 중간에 자리한 32호분에는 회칠을 한 좌우 벽면이 드러나 있다. 천정 부분 위에 연꽃 무늬가 그려져 있어 6세기 초에는 이미 불교가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32호분에는 화려한 금동관이 나와 대가야의 문화수준과 강성한 힘을 엿볼 수 있다. 북방에서 이주해온 가야인들에게는 일찍부터 순장제 풍습이 있었다. 44호 고분에는 1인을 위해 35인 순장되었다. 석실 3개와 석관 32개가 출토되었다. 이 무덤에서는 인골을 비롯해서 가야의 철제갈고리와 투구, 금장식, 곡옥 등 수많은 유적과 유구가 나왔다. 또 묘실 안에서도 2명의 순장자 인골이 발굴되었다. 44호 분에는 오키나와에서만 나는 야광조개조각이 발굴되어 당시 대가야의 교류폭을 보여주고 있다.

대가야의 수도였던 고령은 가야금을 만든 우륵의 탄생지였다. <삼국사기> '잡지'에는 가야금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신라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가야금(대가야)의 가실왕(嘉實王)이 당(唐, 중국)의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 왕이 이르기를 "어려 나라 방언이 각각 다르니 성음(聲音)을 어찌 단일화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드디어 성열현(省熱縣) 사람인 악사 우륵(于勒)을 시켜 12곡을 짓게 하였다. 우륵은 12곡 모두에다 대가야의 영역을 표시하였다. 당시 가실왕은 왕도를 상부(上部)와 중부(中部)와 하부로

나누어 중앙집권을 도모했다. 대가야 토기의 명문에 적힌 '하부(下部)사리(思利)'는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는 음악을 통해 고대국가의 기틀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가실왕 이후 급박한 국제관계 속에서 이뇌왕은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었지만 이내 파기되었고 다시 백제와 연맹을 맺었다. 그러자 우륵은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을 알고, 악기(가야금)를 들고 신라에 가서 진흥왕에게 의탁하였다. 진흥왕은 그를 받아들여 국원(國元)에 편히 살게 하고 이에 대내마 주지(注知)와 계고(階古)와 대사 만덕(萬德)을 보내어 그 업을 전수받게 하였다.

세 사람이 11곡을 전수받고 서로 이르기를 "이 11곡은 번거롭고 또 음탕하여 정아(正雅)의 악이 될 수 없다"고 하고, 드디어 요약해서 5곡을 만들었다. 우륵은 처음 이를 듣고 성을 냈다가 다섯 가지 음악을 듣고서야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말이 "즐거우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애련하면서도 슬프지 아니하니 정악이라 이를 만하다. 그대들의 왕의 앞에 가서 연주하라" 하였다. 왕이 듣고 크게 기뻐하자, 간신이 아뢰기를 "별망당한 가야국의 음악이니 취할 것이 못 됩니다"고 하였다. 왕은 말하기를 "가야왕이 음란하여 자멸한 것이지 음악이 무슨 죄냐. 대개 성인이 음악을 제정함에 있어 인정을 따라 조절하게 한 것이며, 나라의 흥망이 음조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하였다. 드디어 시행하여 대악(大樂)으로 삼게 하였다. 가야금에 2조(二調)가 있으니 하나는 하림조(河臨

고령은 가야금 만든 우륵 탄생지 우륵, 가야금 12곡에 가야 지명 넣어

調)요 다른 하나는 눈죽조(嫩竹調)로서 모두 185곡이다. 우륵이 지은 12곡은 첫째는 하가라도, 둘째는 상가라도, 셋째는 보기, 넷째는 달기, 다섯째는 사물, 여섯째는 물해, 일곱째는 하기물, 여덟째는 사자기, 아홉째는 거울, 열째는 사파해, 열한째는 이혁, 열두째는 상기물이다.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한 대가야는 사라졌지만 영원한 가야인 우륵은 가야금 12곡 이름에 가야 지명을 새겨 넣어 가야를 살려놓았다.

참고문헌

-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 (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 (동서문화사, 1978; 2010).
- 전용신 역주, <완역 일본서기> (일지사, 1987).
- 최치원, 「석순응전」, <동국여지승람>
-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2.3(푸른역사, 2002).
- 이병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민족사, 2005; 2007).
- 역사스페셜, '대가야 최후의 왕자, 월광은 어디로 갔나' (2001. 04. 21)
-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 중반반 :
 - (1)매주 목요일 (2개월과정)
 - (2)훈련식 교육임으로 하시라도 등록 가능함
- ◆ 특혜 :
 - (1)3인이 함께 등록할 경우 원하는 일시에 맞추어 드림
 - (2)개인지도, 출장지도 가능함 - 직접 상담 결정함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국민 011-24-0405-181 | 농협 217049-51-010252 예금주 : 김철희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전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던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술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클리닉 3층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